

지역 매아리

박우정 고창군수, 국가안전대진단 일화 화재취약시설 현장점검 나서

박우정 고창군수가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지난 23일 화재취약시설인 고창노인요양병원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펼쳤다.

박 군수는 이날 고창소방서와 건축, 전기, 가스분야의 민간전문가와 함께 민간 합동점검으로 시설물 안전성과 소화전 비상대피로 확보 등의 안전위험요소를 직접 점검했다.

또한 병원관계자와 현장의 병실을 비롯해 소방시설 등을 둘러보고, 점검결과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사후 철저한 이력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우정 군수는 "최근 제천 복합건물 화재, 밀양 요양병원 화재 등 대형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재해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을 생활화해야 한다"며 "안전사고 없는 안심 고창을 만들기 위해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철저한 관리로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은 다음달 30일까지 실시되며 고창군은 대형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시설물과 건축물 등 732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변산반도국립공원, 5개 구간 일부탐방로 출입 통제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장(소장 김병제)은 봄철 건조기의 산불을 예방하고 국립공원 자연생태계 및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부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한다.

변산반도국립공원내 통제구간은 변산반도국립공원내 내변산분소~가마소삼거리~굴 바위, 바드재~용각봉삼거리, 세봉삼거리~가마소 삼거리, 세봉삼거리~인장암, 민석동~갑불 등 5개 구간 16.2km이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사무소는 산불방지 대책기간 동안 산불예방을 위하여 통제 탐방로 및 셋길(비법정탐방로) 무단입산, 인화물질 반입, 흡연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국립공원을 탐방하면, 버너, 라이터 등 인화물질 반입이 불가하며, 인화물질을 소지한 상태로 입산하거나 통제 구간 탐방로를 무단으로 출입하는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부안=이옥수기자

베리&바이오품연구소

고창군 가공제품 중국 진출

중국 최대 온라인쇼핑몰 '타오바오' 입점·판매

재단법인 베리&바이오품연구소가 고창군 농특산물과 가공제품들의 해외 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중국 최대의 온라인쇼핑몰인 '타오바오'에 입점, 판매를 시작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연구소는 주식회사 명원(대표 이종운)과 함께 고창군 가공제품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201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이번 타오바오 입점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입점한 지역 식품기업 7개소는 △청맥 주식회사(대표 김재주) △고창농부의 아침(대표 김명철) △임성규네 고구마(대표 임성규) △신토복분자(대표 임영래) △고창명산품복분자주(대표 노광록) △천심농농조합법인(대표 주세원) △고창서해안복분자주(대표 송지희)의 28개 제품이 입점했다.

지금까지 고창군 제품은 베리류를 중심으로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지만 해외 시장 개척이 쉽지 않고 고창군 제품 홍보에 적극적이고 신뢰가 형성된 유통업체가 없어 해외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중국 오픈마켓 시장 진출을 통해 관내 식품기업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으며 향후 연구소는 중국의 여러 가지 판



재단법인 베리&바이오품연구소가 고창군 농특산물과 가공제품들의 해외 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중국 최대의 온라인쇼핑몰인 '타오바오'에 입점, 판매를 시작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매망과 노하우, 그리고 중국시장과 그에 따른 트렌드 및 시장상황을 잘 알고 있는 (주)명원을 통해 스타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중국과 외교적 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소와 고창군 관내업체가 등

반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더 나아가 고창군민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점 제품은 타오바오 쇼핑몰(<https://world.taobao.com>)에서 판매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시내 구간 교통 정체 해소 '기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정읍시, 국도 29호선과 1호선 연결 우회도로 개설 본격 추진

정읍지역 국도 29호선과 1호선을 연결하는 우회도로가 개설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청)과 정읍시는 국도 29호선과 국도 1호선을 연결하는 국도대체(농소~하모)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에 따르면 농소동 주천삼거리에서 시내 구간을 통과하는 국도 29호선의 교통 혼잡으로 호남고속도로 정읍IC 이용 차량의 불편이 크고 시내 교통 체증을 유발해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480억원을 투입해 농소동 주천삼거리에서 상고동 하모교를 연결하는 2.3km를 4차선으로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3년 완공 예정으로 익산청은 지난해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의뢰, 현재 조달청에서 시공업체 선정 중이다.

또 보상을 받고 있는 시는 이달 말까지 토지 분할 축량을 마칠 계획이다.

이후 3월 감정평가를 거쳐 4월경부

터는 본격적인 용지 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관련해 정읍시는 현재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 청취와 보상 계획 열람공고를 마치고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정읍시는 "공사가 완료되면 시내 구간 교통 정체 해소 등을 통해 관광객과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전북도가 주관한 2017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23일 군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7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에서 지방세 증감율과 징수를 세부조사 실적, 마을세무사운영, 지방세정운영,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와 행정제재 실적 등의 15개 평가 항목을 합산한 종합 평가에서 고창군이 우수한 평가를 얻어 우수기관 선정과 함께 포상금 600만원을 수상했다.

지방세정 평가는 시·군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주적인 자치재원 확충과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3년 연속, 올해 우수군으로 수상하게 된 것은 지방세 업무 담당자들의 노력과 선진 납세의식을 갖춘 우리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군민이 보다 편리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특히 올해에는 납세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과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운영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시정 주요사업 협업TF팀 가동·운영

정읍시가 부서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통해 주요 현안 사업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했다.

시는 지난 23일 '시정 주요사업의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23일부터 주요사업 협업TF팀(이하 협업TF팀)'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협업TF팀은 총괄자원을 맡은 기획예산실과 환경과, 건축과, 특구지원과, 예코축산과, 농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7개 부서 6개 팀으로 편성했다.

주요 추진 분야는 Eco축산 청정정읍 조성, 첨단과혁신산업 미래비전 2030 등 시는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관련해 협업TF팀은 23일 회의를 갖고 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서

별로 제시된 추진사항을 바탕으로 연계 가능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TF팀은 지속적으로 협업회의를 마련해 사업 간 연계된 업무 추진과 함께 행정의 수요자인 시민들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더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서 간 협업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통해 저비용, 고품질의 행정을 구현한다는 의지다.

김용만 시장 권한대행은 협업TF팀 운영과 관련, "부서별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 부서 간 업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특히 예산과 행정력의 중복 투입 방지, 관리 등 행정의 매우 중요한 협의과정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호남지방통계청 청년정책개발 위한 업무협약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청년이 돌아오는 고창으로 발돋움을 위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의 첫발을 내디뎠다.

군은 지난 23일 군청 회의실에서 이길수 고창군부군수와 문권순 호남지방통계청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지방통계청과 지역통계 개발과 활성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이 지역발전 위한 행정통계 개발을 지원하고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위한 지역통계를 함께 생산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청년의

삶 전반에 걸친 통합적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10여개 공공기관의 행정자료를 수집해 고창군 전 연령층과 청년층의 인구학·사회학·경제학적 현황을 심층 비교 분석하는 '고창군 청년통계'를 올 10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길수 부군수는 "호남지방통계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고창군 특성에 맞는 정책수립을 위한 지역통계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상호 협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생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통계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군정 정책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품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결핍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